

개인특성, 사업역량 및 창업동기가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벤처창업기업과 일반창업기업의 차이를 중심으로

김형석 (신용보증기금 본부장)¹⁾ 정병규 (성결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²⁾

국문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가의 어떤 개인특성과 사업역량 및 창업동기 요인들이 창업만족도, 기업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창업만족도와의 영향관계에서 벤처창업기업과 일반창업기업의 조절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창업 활성화 특히,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강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본 연구는 신용보증기금의 창업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320개의 설문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24.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자의 개인특성 중 창의성은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자의 개인특성 중 실패부담감은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창업자의 개인특성 중 경험은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업역량의 기술개발역량, 마케팅역량, 네트워크역량, 자금조달역량은 모두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창업동기의 경제적 동기, 자아실현동기는 모두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창업만족도는 기업성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개인특성 중 창의성, 사업역량 중 기술개발역량, 창업동기 중 자아실현동기가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침에 있어서 벤처창업기업이 일반창업기업보다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인특성 중 실패부담감이 창업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침에 있어서는 벤처창업기업이 일반창업기업보다 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유형에 따른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창업자의 개인특성, 창업역량 및 창업동기가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벤처창업기업과 일반창업기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관련 선행연구들과의 뚜렷한 차별점이자 학문적 시사점이라고 하겠다.

■ 중심어: 개인특성, 사업역량, 창업동기, 창업만족도, 기업성장, 벤처창업

I. 서론

2020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침체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로봇기술, 가상현실(VR), 자율주행차 등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전통적인 일자리는 급격하게 감소하

1)제1저자: 신용보증기금 본부장, 경영학 박사, glorykhs@naver.com
2)교신저자: 성결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 경영학 박사, gljoseph@sungkyul.ac.kr
· 투고일: 2023-01-19 · 수정일: 2023-03-10 · 게재확정일: 2023-03-15

고 있다. 또한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른 저성장 기조의 지속으로 고용약화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어 경제 활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고용없는 성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창업이 제시되고 있다. 벤처기업은 혁신적이고도 도전적인 기술로 일자리 창출 및 글로벌 진출 등 국민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우리 정부에서도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벤처창업 활성화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벤처기업에 대한 정의는 국가별로 다양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이들의 정의를 종합적으로 요약해보면 “신기술 또는 첨단기술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려는 중소기업으로 실패의 위험성이 크나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모험형 기업(venture business)이라고 할 수 있다(한창인, 2020). 한국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 규정에 따라 확인한 중소기업체로 정의하고 있는데, 고위험(high risk)과 고성과(high return)를 특징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 일정한 조건을 가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벤처기업에 대한 요건 정의에 대해 과거에는 공공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던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2021. 2월부터는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예비벤처기업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혁신성장중심의 민간주도 벤처 확인제도로 전면 개편하였다. 창업기업 업력에 대한 기준은 지원기관이나 지원프로그램 및 연구대상에 따라 다양한 기준을 혼용하고 있으며 학문적으로도 명확한 개념 정의는 미흡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2호에서는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창업보증을 지원받은 창업기업으로 하였기 때문에 창업기업에 대한 업력기준을 근거법률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기준과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창업보증을 지원하는 기준을 감안하여 업력 7년 이내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신용보증기금 창업보증 지원 당시 업력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확인된 벤처창업기업과 그 외의 일반창업기업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가의 어떤 개인특성과 사업역량 및 창업동기 요인들이 창업만족도 및 창업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창업만족도와외의 영향관계에서 벤처창업기업과 일반창업기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절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강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성공적인 창업을 나타내는 간접지표로서 창업에 대한 창업자의 주관적인 만족 정도인 창업만족도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창업자 특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김영부, 2019; Cubbon et al., 2021; Yu et al., 2021)과 창업역량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Kurniawan et al., 2021; 한향원, 2021; 송민용, 2022)과 창업동기가 만족도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장수덕, 2020; Milot-Lapointe et al., 2021)이 있다. 창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이라고 판단되는 창업자의 개인특성과 사업역량 및 창업동기가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아직까지 서로 일치되지 못한 점이 많고 그 원인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벤처창업 활성화를 정부정책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창업만족도와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수많은 선행연구들이 있지만 이러한 영향관계에서 벤처창업기업과 일반창업기업의 차이를 밝힌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창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 그 영향관계에서 일반창업기업과 차이가 나는 벤처창업기업의 특징들을 확인함으로써 성공적인 창업과 특히 고용과 부가가치 측면에서 경제파급력이 상대적으로 더 큰 벤처기업(김희선, 2019) 창업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개인특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기업의 성공적인 운영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기업가 또는 창업자

개인 자신이다.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은 창업자와 비창업자를 구별 짓는 특징으로서 뿐만 아니라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목을 받아왔다(정성한, 김해룡, 2001). 본 연구에서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창업보증을 지원받은 창업기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창업기업의 대표자인 기업가를 창업자라는 용어로 가급적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창업을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창업자이며, 창업성공을 위해서는 먼저 창업가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창업자의 개인특성들을 심리적인 특성과 역량적인 특성 등을 혼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창업자 개인의 다양한 특성이 각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개별적인 경험 및 역량특성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창업자들의 각 특성요인들을 잘 확인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성공창업과 경영성과를 향상시키는 선행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 개인특성에 대한 정의를 이희혁(2020)이 제시한 정의를 참고하여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여 기업을 운영하는 창업자의 특성'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가 창업만족도에 초점을 맞추고 벤처창업과 일반창업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만큼 창업자의 여러 가지 개인특성 중 창의성 관련 선행연구(서성열, 2019; 이희혁, 2020; Yu et al., 2021), 경험 관련 선행연구(장수덕, 2020; 한향원, 2021), 실패부담감 관련 선행연구(Yu et al., 2021; 양경애, 2021) 등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영향관계를 확인한 창의성, 경험, 실패부담감을 개인특성의 구성요인으로 설정하고 역량과는 구분하여 연구하고자 했다.

창업자 개인특성 중 창의성은 창의적 역량과 아주 관련이 깊다. 창의성은 개인의 새로운 아이디어 발상을 위한 능력으로, 문제해결과 발견을 위한 독창성, 융통성, 유창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였다(Runco, 1991).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에 대한 정의를 선행연구 Runco(1991), 임아름(2015), 서성열(2019) 등이 제시한 정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도출하고 타인과는 다른 참신한 생각과 독창적인 문제해결 능력'으로 정의하였는데, 서성열(2019)은 청년 창업가의 창의역량이 창업의지를 통해 창업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Obschonka et al.(2020)은 창의성이 창업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Delmar & Shane(2006)은 창업가 역량이 산업체 경험, 스타트업 경험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경험은 창업가가 신규사업에 대한 책임을 극복하고, 신규사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이전 창업경험이 있는 창업가는 창업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창업에 실패할 확률이 낮다고 하였다. 근무경험이나 창업경험이 없는 창업가는 경험을 가진 창업가보다 더 많은 실수로 성과를 저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Delmar & Shane, 2006). 본 연구에서는 경험에 대한 정의를 선행연구 Delmar & Shane(2006), 장영미(2018), 한향원(2021) 등이 제시한 정의를 바탕으로 '직장경력, 동종 혹은 유사 업종에서의 관련 종사경험이나 노하우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경험'으로 정의하였는데, 장수덕(2020)은 직장경험이 창업자의 내재적 창업만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Sarwoko & Nurfarida(2021)는 경험이 창업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시장조사 전문기업 마크로밀엠브레인의 트렌드모니터(trend monitor.co.kr)가 조사한 '2020 창업관련 인식조사'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은 '창업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로 '사업은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56.6%)'를 꼽았고, 그다음으로 많이 꼽은 이유인 '창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빚더미에 앉을 수 있기 때문에(44.3%)' 역시 사업에 대한 위험부담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창업에 실패했을 경우 전부 잃어버릴 수 있다는 실패부담감은 창업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마크로밀엠브레인, 2020). 이를 통해 창업을 실패할 경우 과도한 부채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신용불량 및 개인파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창업을 꺼리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패부담감에 대한 정의를 선행연구 하규수(2009), 선량(2019), 김진홍(2021) 등이 제시한 정의를 바탕으로 '창업자를 에워싼 창업환경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창업을 회피하게 만드는 창업자의 주관적이고도 심리적인 부담감'으로 정의하였는데, 선량(2019)은 실패부담감이 창업기회인식에 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Cubbon et al.(2021)은 실패부담감이 창업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2.2 사업역량

역량은 기업가가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가치, 태도, 행동들을 포괄하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창업기업이므로 창업기업의 대표자인 기업가의 사업역량을 창업역량이라는 용어로 가급적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기반이론(RBV: Resource Based View)의 관점에서 창업역량을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기업의 핵심자산으로 파악하고 창업역량에 대한 정의를 정두식(2016), 이해영(2018), 장영미(2018) 등이 제시한 정의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필요한 지식, 가치, 기술, 태도, 행동 등을 포괄하는 창업자의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창업역량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주로 기업성과나 창업의지와외의 관계에 대해 연구되어져 왔는데 창업만족도 역시 창업성과에 대한 창업자의 주관적인 만족 정도로 창업역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김영부(2019)도 창업성과를 창업만족도라는 비재무적 지표로 대체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만족도에 초점을 맞추고 벤처창업과 일반창업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만큼 다양한 창업역량 중 기술개발역량 관련 선행연구(이해영, 2018; 김진한, 2020; 윤종필, 2021; 송민용, 2022), 마케팅역량 관련 선행연구(김진한, 2020; Kurniawan et al., 2021; 송민용, 2022), 네트워크역량 관련 선행연구(윤상만, 2019; Kurniawan et al., 2021; 윤종필, 2021), 자금조달역량 관련 선행연구(Chakraborty et al., 2019; 한향원, 2021) 등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영향관계를 확인한 기술개발역량, 마케팅역량, 네트워크역량, 자금조달역량을 창업역량의 구성요인으로 설정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기술개발 역량은 고객과 시장 요구를 기반으로 사업화를 위한 아이템을 선정하고 제품화하는 창업가의 능력으로 이는 제품개발에서 생산, 출시까지의 전 과정과 관련된 제반 능력과 적용기술의 선택과 취득, 개선, 활용에 필요한 지식과 기법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역량이라고 하였다(Barney, 1991; 한만선, 2020). 본 연구에서는 기술개발역량에 대한 정의를 선행연구 장영미(2018), 서성열(2019), 정종식(2021) 등이 제시한 정의를 바탕으로 '제품개발 및 생산과 관련된 제반 기술능력 및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기술 개발, 획득 및 전문화된 기술을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으로 정의하였는데, 김진한(2020)은 기술개발역량이 재무 성과와 비재무 성과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송민용(2022)은 기술개발역량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는 바,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기술개발역량과 기업성과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기업의 성과는 수익창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창업기업의 경우 시장성을 확보하는 것이 기업의 생존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특히 마케팅능력은 기업이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마케팅역량에 대한 정의를 선행연구 김남호(2015), 윤종필(2021) 등이 제시한 정의를 바탕으로 '고객욕구와 시장정보를 파악해서 목표시장을 선정하고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여 고객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경쟁제품 분석, 가격정책 결정, 유통채널 확보 및 제품홍보 등의 기획·실행 역량'으로 정의하였는데, 김진한(2020)은 마케팅역량이 기업의 재무 성과와 비재무 성과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Kurniawan et al.(2021)은 마케팅역량이 창업만족과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네트워크역량은 지식기반산업에서 중요한 전략이며, 동시에 기업가의 핵심역량으로 간주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역량에 대한 정의를 선행연구 양경애(2021), 윤종필(2021) 등이 제시한 정의를 바탕으로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자원 및 정보의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외부의 다양한 동업계, 협력사(구매 및 판매), 전문기관(대학, 연구소, 협회, 금융기관 등)과 네트워크 채널을 확보하고 활용하는 역량'으로 정의하였는데, 윤상만(2019)은 네트워크 활동이 경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Kurniawan et al.(2021)은 네트워크역량이 창업만족과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금조달역량은 창업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 중의 하나이다. 창업기업에 있어 자금은 창업이나 기업 존립 자체를 위한 기본적인 요소이며, 창업을 하거나 기업을 영위하는 한 자금의 필요성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2021년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간접금융을 통한 신규 자금조달은 총액의 89.4%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있어 간접금융에 의한 자금조달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기업은행, 2021). 본 연구에서는 자금조달역량에 대한 정의를 선행연구 장영미(2018) 등을 참고하여 '조직이 전략을 수립한 후 실행을 하기 위한 필요자금을 내부·외부로부터 적절하게 조달

할 수 있는 역량'으로 정의하였는데, 김형진(2019)은 재무적 역량이 창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Chakraborty et al.(2019)은 자금조달역량이 창업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2.3 창업동기

동기(motivation)란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로 창업동기는 새로운 사업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하며,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를 통해 신사업을 벌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도록 만드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유봉호, 2015). 동기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인 Ryan & Deci(2000)의 자기결정성 이론(SDT: Self-determination theory)은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 동기화된다는 이론으로 사람들이 외부의 영향과 관계없이 본인의 생각과 주관, 목표의식 등에 의해 스스로 부여하는 내재적 동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내재적 창업동기로 경제적 동기와 자아실현동기를 살펴 보고자 한다. 창업동기와 관련한 또 하나의 대표적 이론은 Gilad & Levine(1986)의 푸시-풀이론(push-pull theory)이다. 풀(pull)요인으로는 성취욕구, 사회적 사명, 독립심 등이 있는데 대개 창업기회 자체의 매력이나 창업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결과를 포함한다. 푸시(push)요인으로는 실업, 낮은 임금, 직업불만족 등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창업선택을 강요하는 부정적인 상황을 포함한다(Gilad & Levine, 1986; 배병윤, 이주현, 2018). 이러한 창업동기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주로 기업성과나 창업의지와외의 관계에 대해 연구되어져 왔는데 창업만족도 역시 창업성과에 대한 창업자의 주관적인 만족 정도로 창업동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창업보증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생계형 창업이 많은 영세 자영업자에 비해 기회형 창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Gilad & Levine(1986)의 푸시-풀이론(push-pull theory)보다는 자율성·유능성·관계성을 바탕으로 하는 Ryan & Deci(2000)의 자기결정성 이론(SDT: Self-determination theory)에 기초한 내재적 창업동기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창업동기에 대한 정의를 유봉호(2015)가 제시한 '새로운 사업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욕구'로 정의하였으며, 여러 연구자들이 연구한 다양한 창업동기 중 경제적 동기 관련 선행연구(장수덕, 2020; Milot-Lapointe et al., 2021; 박성근, 2021; 한향원, 2021), 자아실현동기 관련 선행연구(Milot-Lapointe et al., 2021; 양경애, 2021; 한향원, 2021) 등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영향관계를 확인한 경제적 동기와 자아실현동기를 창업동기의 구성요인으로 설정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창업동기에 있어 경제적 요소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배병윤, 이주현(2018)은 창업동기를 경제적동기와 비경제적 동기로 연구하였는데 경제적 동기는 생계를 위한 소득증대, 부의 증대를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동기에 대한 정의를 선행연구 배병윤, 이주현(2018), 박성근(2021), 한향원(2021) 등을 참고하여 '모든 일에 있어 돈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경제적 욕구를 기초로 한 창업동기'로 정의하였는데, 장수덕(2020)은 창업이후 경제적 수입이 외재적·내재적 만족에 모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Su et al.(2020)은 경제적 동기가 창업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아실현욕구는 Maslow 욕구위계이론(Maslow's hierarchy of needs)의 가장 상위욕구로 개인이 높은 목표를 세우고 계속 발전하기 위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하였다(Maslow, 1943). 본 연구에서는 자아실현동기에 대한 정의를 선행연구 Maslow(1943), 선량(2019), 한향원(2021) 등을 참고하여 '자기가 좋아하고 적성에 맞으며 잘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자신의 꿈과 이상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창업동기'로 정의하였는데, 한향원(2021)은 자아실현동기가 창업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Milot-Lapointe et al.(2021)은 자아실현동기가 창업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2.4 창업만족도

대체적으로 만족은 주관적인 감정상태의 정도를 나타내므로 개인의 생각 또는 경험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다르게 표현된다. Herzberg는 동기위생이론을 정의하였는데 개인들의 욕구가 단계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욕구는 불만족 해소 차원과 만족 증진 차원의 별개 차원으로 이루어 진다고 주장하였다(Herzberg, 1959). 창업만족도에 대한 여러 연구자들의 정의를 보면, 현재 창업상태에서 창업자가 느끼는 부족함이 없는 흡족한 상태의 주관적인 느낌(이상화, 하규수, 2015), 창업자가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창업에 대한 행위와 결과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이희혁, 2020), 현재의 사업에 대한 만족도로 향후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주관적 감정(한향원, 2021) 등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창업만족도와 관련한 연구는 해당 산업 및 연구자의 관심분야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어져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창업만족도에 대한 정의를 선행연구 이상화, 하규수(2015), 이희혁(2020), 한향원(2021) 등을 참고하여 '창업자가 현재의 사업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으로, 창업에 대한 행위와 결과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만족의 정도'로 정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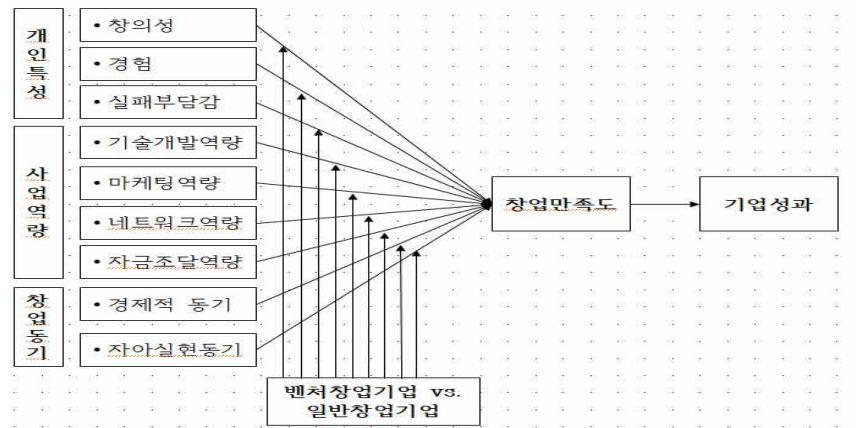
2.5 기업성과

일반적으로 창업성과란 창업기업의 목표가 경영계획 하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한 결과물로서 경영전략의 적합성을 검증할 수 있는 지표를 의미(고세훈, 2011)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창업기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창업성과란 창업기업의 재무적·비재무적 성과를 포괄한 기업성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였다. 통상적으로 기업의 재무적 성과는 단기성과와 연관된 개념으로 사용 중이며 비재무적 성과는 장기적 성과측정과 연관된 개념으로 사용 중이다(Govindarajan, 1984). 이 중에 기업 활동 성과를 보여주는 재무적 성과는 기업회계의 관점에서 성과를 표현한 측정지표로 기존의 대부분 기업들은 기업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측정기간 중의 경영수준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당기 순이익(NI), 자기자본순이익률(ROE), 투자수익률(ROI) 등을 적용하고 있다(Ittner & Larcker, 1998). 기존의 연구들에서 비재무적 성과지표의 중요성과 활용방안을 언급하지만 비재무적 성과지표는 측정 범위가 다양하여 객관화 되기가 어렵고 단기적 기업성과를 표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역시 존재한다. 성과와 관련한 연구자들의 정의를 보면, 창업성과를 매출액, 고용창출 등 인지된 창업성과(임아름, 2015)로, 창업기업의 재무성과는 기업의 재무적 성공이고 비재무성과는 기업의 비재무적 성장(김진한, 2020)으로, 경영성과를 일정기간 기업활동의 결과로 얻은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이희혁, 2020) 등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기업성과와 관련한 연구는 해당 산업 및 연구자의 관심분야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어져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업성과에 대한 정의를 선행연구 임아름(2015), 김진한(2020), 이희혁(2020) 등을 참고하여 '창업기업의 재무적·비재무적 성과를 포괄하여 창업자가 인식하는 주관적인 기업성과'로 정의하였다.

III. 연구 설계

3.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모형은 자원기반이론(RBV: Resource Based View)과 Ryan & Deci(2000)의 자기결정성이론(SDT: Self-determination theory)을 연구의 기반으로 사용하였고, 설정한 각 변수의 세부요인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던 다양한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선정하였다. 창업자와 창업기업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창업자 개인 특성 중 창의성, 경험, 실패부담감, 사업역량 중 기술개발역량, 마케팅역량, 네트워크역량, 자금조달역량, 창업동기 중 경제적 동기, 자아실현 동기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창업만족도와 기업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이들의 영향 관계가 벤처창업기업 또는 일반창업기업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검정하기 위해 기업 유형을 조절변수로 설정한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그림 1 참조).



<그림 1> 연구모형

3.2 가설 설정

성공적인 창업에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창업자 개인 자신으로 창업자의 개인특성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구성요인으로 구분한 선행연구들이 있는데, 김영부(2019), Obschonka et al.(2020), Cubbon et al.(2021), Sarwoko & Nurfarida(2021), Yu et al.(2021) 등은 창업자 개인특성과 만족도 간의 유의한 영향관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개인특성 중 창의성, 경험, 실패부담감을 구성요인으로 설정하고, 이 요인들이 창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1-1 : 개인특성 중 창의성은 창업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 개인특성 중 경험은 창업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 개인특성 중 실패부담감은 창업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역량은 기업가가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가치, 태도, 행동들을 포괄하는 역량이라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창업기업이므로 사업역량은 창업역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화, 하규수(2015), Chakraborty et al.(2019), Kurniawan et al.(2021), 송민용(2022) 등은 창업역량과 창업만족도 간의 유의한 영향관계를 확인하였다. 창업역량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구성요인으로 구분한 선행연구들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창업역량 중 기술개발역량, 마케팅역량, 네트워크역량, 자금조달역량을 구성요인으로 설정하고, 이 요인들이 창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2-1 : 사업역량 중 기술개발역량은 창업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 사업역량 중 마케팅역량은 창업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3 : 사업역량 중 네트워크역량은 창업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4 : 사업역량 중 자금조달역량은 창업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동기(motivation)란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로 창업동기는 새로운 사업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한다. 창업동기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구성요인으로 구분한 선행연구들이 있는데, Su et al.(2020), 장수덕(2020), Milot-Lapointe et al.(2021), 한향원(2021) 등은 창업동기와 창업만족도 간의 유의한 영향관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창업동기 중 경제적 동기와 자아실현동기를 구성요인으로 설정하고, 이 요인들이 창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3-1 : 창업동기 중 경제적 동기는 창업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 창업동기 중 자아실현동기는 창업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창업기업의 기업성과란 창업성과를 말하며 이러한 기업성과와 관련한 연구는 해당 산업 및 연구자의 관심분야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어져 왔는데, 김광인(2021), 송민용(2022) 등은 만족도가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만족도가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4 : 창업만족도는 기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창업만족도와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수많은 선행연구들이 있지만 이러한 영향관계에서 벤처창업기업과 일반창업기업의 차이를 밝힌 연구는 거의 없는 만큼 본 연구에서는 벤처창업기업과 일반창업기업이라는 기업유형이 창업가의 개인특성, 사업역량 및 창업동기가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절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5-1 : 벤처창업기업과 일반창업기업은 개인특성 중 창의성이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H5-2 : 벤처창업기업과 일반창업기업은 개인특성 중 경험이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H5-3 : 벤처창업기업과 일반창업기업은 개인특성 중 실패부담감이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H5-4 : 벤처창업기업과 일반창업기업은 사업역량 중 기술개발역량이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H5-5 : 벤처창업기업과 일반창업기업은 사업역량 중 마케팅역량이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H5-6 : 벤처창업기업과 일반창업기업은 사업역량 중 네트워크역량이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H5-7 : 벤처창업기업과 일반창업기업은 사업역량 중 자금조달역량이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H5-8 : 벤처창업기업과 일반창업기업은 창업동기 중 경제적 동기가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H5-9 : 벤처창업기업과 일반창업기업은 창업동기 중 자아실현동기가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3.3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실증 분석하기 위해 분석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은 설문조사일 현재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한 창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자료의 수집 기간은 2022년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이며, 총 330부를 수집하여 결측된 10부를 제외하고 최종 320부를 활용하여 연구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적 처리는 SPSS 24.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타당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인과관계 가설검정 및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4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연구 목적에 적합하고 구성 항목에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 측정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개인 특성중 창의성, 경험, 실패부담감, 사업역량중 기술개발역량, 마케팅역량, 네트워크역량, 자금조달 역량, 창업동기중 경제적 동기, 자아실현 동기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창업만족도와 기업 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이들의 영향 관계가 벤처창업기업이나 일반창업기업이나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기업 유형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들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는 <표 1>과 같다.

<표 1> 설문지 구성

구분	설문 문항	문항수	출처
개인 특성	1.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보다 잘 생각해 낸다. 2. 나는 생각이 참신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3. 나는 주변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을 자주 하는 편이다. 4. 나는 문제를 해결할 때 나만의 방법을 잘 사용한다. 5. 나는 독특한 아이디어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경험이 많다.	5	임아름(2015), 서성열(2019)
	1. 나는 내가 운영하는 사업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많다. 2. 나는 내가 운영하는 사업 분야에 대한 노하우가 많다. 3. 나는 내가 운영하는 사업 분야와 유사한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많다.	5	Delmar & Shane(2006), 장영미(2018).

구분	설문 문항	문항수	출처
	4. 나는 내가 운영하는 사업에 필요한 충분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5. 나는 내가 운영하는 사업에 필요한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한향원(2021)
	1. 내가 사업에 실패하면 경제적 손실에 대한 부담감이 많다. 2. 내가 사업에 실패하면 차입금 상황(빚더미)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것이다. 3. 내가 사업에 실패하면 가족들이 어려움에 빠질 것이다. 4. 내가 사업에 실패하면 사회적으로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다. 5. 내가 사업에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5	하규수(2009), 선량(2019), 김진홍(2021)
사업 역량	1. 나는 다른 사람과 비해 기술혁신 능력이 있다. 2. 나는 기술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3. 나는 운영하는 사업 분야와 관련된 기술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4. 나는 내 사업에 관한 제품(서비스)의 기술 트렌드를 잘 파악하고 있다. 5. 나는 내 사업분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련 기술 전문가들을 확보할 수 있다.	5	장영미(2018), 서성열(2019), 정종식(2021)
	1. 나는 제품의 타겟시장을 분석하고 가격결정, 판매예측 등의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2. 나는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상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3. 나는 신제품의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한 판매채널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4. 나는 고객욕구를 빠르게 파악하고 반영하는 조직체계를 잘 갖추고 있다. 5. 나는 경쟁제품의 장단점 및 시장 내 입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5	이상화, 하규수(2015), 윤종필(2021)
	1. 나는 내 사업과 관련한 사업체 사람들과 자주 교류한다. 2. 나는 다양한 채널의 협력사(구매 및 판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3. 나는 내 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외부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4. 나는 친화력이 좋은 편이다.	4	양경애(2021), 윤종필(2021)
	1. 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기자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2. 나는 투자나 차입 등 다양한 자금조달 방안을 가지고 있다. 3. 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주변(친척, 지인 등)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다. 4. 나는 사업을 하면서 자금사정이 다소 어려워지더라도 타개해 나갈 능력이 있다.	4	장영미(2018), 김형진(2019)
창업 동기	1. 나는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2. 나는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꿈꾸곤 했다. 3. 나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 적당한 금전적 보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나는 직업선택에 있어 돈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5. 나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5	박성근(2021), 한향원(2021)
	1.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꿈을 사업이 실현해 준다고 생각한다. 2. 나는 사업이 나 자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나는 사업을 통해 내가 좋아하는 일에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나는 사업을 하면 보다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5. 나는 사업이 나의 삶을 보람있게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5	선량(2019), 한향원(2021)
창업만족도	1. 나는 사업하길 잘했다고 생각한다. 2.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3. 나는 사업에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4. 나는 현재 사업을 즐겁게 운영하고 있다. 5. 나는 현재 사업에서 성취감을 느낀다.	5	이희혁(2020), 한향원(2021)
기업성과	1. 우리 회사는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 2. 우리 회사는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3. 우리 회사는 고용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4. 우리 회사는 제품개발능력이 증가하고 있다. 5. 우리 회사의 고객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다.	5	임아름(2015), 김진한(2020), 이희혁(2020),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연령, 결혼여부, 학력, 창업횟수, 벤처기업여부, 회사형태, 현재 회사 업력, 총 사업 경력, 본사 소재지, 회사 업종, 상시 종업원수, 연간 매출액, 당기순이익, 자본금	15	-
합 계		68	

IV. 연구 결과

4.1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는 타당성 검정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측정도구의 회귀분석 변수로 사용하기 위해 요인분석에 주성분 분석과 직각회전방식(Varimax)을 사용하였다.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고유치와 요인 적재값을 사용하였다. 하위 요인별 요인 적재값은 사회과학 연구에서 권고치인 .6 이상을 사용하였다. 최종 요인분석 결과 11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전체 설명력은 71.065%로 나타났다. 수집된 요인분석 적합도를 위해 KMO 표본 적합성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지표를 검토한 결과는 <표 2>와 같고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모형임이 확인되었다.

<표 2> 탐색적 요인분석의 KMO 및 Bartlett의 검정 결과값

Kaiser-Meyer-Olkin 표본 적합도 검정		.926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Approx χ^2)	11004.538
	자유도(df)	1275
	유의수준(p)	.000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 결과 최종 11개의 요인들의 측정 결과에 대한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신뢰도를 분석하였는데 Cronbach's α 값이 모두 .7 이상으로 분석되어 신뢰도는 확보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4.2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 변수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분석(Pearson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 결과 변수들의 상관관계가 긍정적인 관계를 보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인과관계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모든 구성요소의 상관관계는 .8 이하로 나타나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성을 확보하였다.

<표 3> 상관관계 분석 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창의성	1										
경험	.447**	1									
실패부담감	-.203**	-.062	1								
기술개발역량	.549**	.525**	-.255**	1							
마케팅역량	.492**	.480**	-.216**	.636**	1						
네트워크역량	.456**	.493**	-.225**	.605**	.700**	1					
자금조달역량	.318**	.247**	-.336**	.424**	.480**	.478**	1				
경제적동기	.236**	.212**	-.068	.283**	.343**	.320**	.251**	1			
자아실현동기	.501**	.333**	-.403**	.571**	.595**	.462**	.330**	.515**	1		
창업만족도	.441**	.291**	-.152**	.516**	.491**	.558**	.538**	.432**	.568**	1	
기업성과	.387**	.346**	-.290**	.490**	.518**	.504**	.434**	.280**	.409**	.681**	1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양측)

4.3 인과관계 가설 검정 결과

본 연구는 창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설을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방법으로 검정하였다. 먼저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하였다. 다중공선성 판단을 분산팽창요인(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을 통해 확인하였다. VIF 기준은 10미만이면 다중공선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분석 데이터의 VIF를 확인한 결과 1.088~2.826으로 기준치보다 낮게 나타나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위해 모형1에서는 통제변수를 투입하였다.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성별, 연령, 결혼여부, 학력, 창업횟수, 사업 형태, 현재 회사 업력, 총 사업경력, 종업원수 9개이다. 이 중에서 범주형 변수인 성별, 결혼여부, 학력, 사업형태에 대해서는 회귀분석을 위해 더미 변수화를 먼저 시행하였다. 이어 모형2에서는 통제변수가 통제된 상태에서 독립변수인 개인특성 중 창의성, 경험, 실패부담감, 사업역량 중 기술개발역량, 마케팅역량, 네트워크역량, 자금조달역량, 창업동기 중 경제적 동기, 자아실현동기 9개를 투입했다.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창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변수	모형 1				모형 2					
	B	β	t	p	B	β	t	p	VIF	결과
(상수)	3.531		8.589	.000	.565		1.619	.106		
성별	-.069	-.024	-.411	.681	.105	.037	.969	.333	1.127	
연령	-.045	-.048	-.713	.476	-.022	-.023	-.532	.595	1.495	
결혼여부	.214	.108	1.746	.082	-.104	-.052	-1.312	.191	1.259	
학력	.025	.034	.573	.567	-.018	-.025	-.664	.507	1.146	
창업횟수	-.058	-.065	-.957	.339	-.062	-.071	-1.632	.104	1.481	
사업형태	.016	.017	.268	.789	.072	.079	1.906	.058	1.356	
현재회사업력	.047	.088	1.087	.278	.058	.110	2.122	.035	2.105	
총사업 경력	.048	.077	.833	.406	-.003	-.005	-.079	.937	2.826	
종업원수	.012	.019	.293	.770	-.028	-.043	-1.002	.317	1.476	
개인 특성	창의성				.158	.154	3.262	.001	1.764	채택
	경험				.066	.071	1.569	.118	1.616	기각
	실패부담				-.161	-.208	-5.313	.000	1.206	채택
사업 역량	기술				.131	.130	2.347	.020	2.413	채택
	마케팅				.139	.131	2.336	.020	2.489	채택
	네트워크				.122	.118	2.156	.032	2.379	채택
	자금				.172	.169	3.862	.000	1.516	채택
창업 동기	경제동기				.119	.128	2.953	.003	1.494	채택
	자아실현				.218	.195	3.964	.000	1.905	채택
F 변화량		1.054						52.083***		
R ²		.030						.624		
수정된 R ²		.002						.601		
R ² 변화량		.030						.594		

모형 1은 통제변수가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것이다. 회귀분석에서의 설명력은 변수의 영향력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종속변수의 총 변동 비율을 말한다. 모형 1의 설명력(R²=.030, 수정된 R²=.002)은 3.0%이고, F=1.054(p >.05)로 나타났다. 모든 통제변수들과 창업만족도간 유의한 영향관계는 검정되지 않았다. 모형 2는 통제변수가 통제된 상태에서 독립변수인 개인특성 중 창의성, 경험, 실패부담감, 사업역량 중 기술개발역량, 마케팅역량, 네트워크역량, 자금조달역량, 창업동기 중 경제적 동기, 자아실현동기 9개를 투입했다.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발역량, 마케팅역량, 네트워크역량, 자금조달역량, 창업동기 중 경제적 동기, 자아실현동기가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의 설명력($R^2=.624$, 수정된 $R^2=.601$)은 62.4%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27.360$, $p<.001$). 통제변수 중 현재 회사의 업력이 유의한 영향 관계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변인들은 유의한 영향관계가 검증되지 않았다. 개인 특성 중 창의성은 $B= .158$, $p < .01$ 로 나타나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 관계가 검증되었다. 개인 특성 중 경험은 $B= .066$, $p > .05$ 로 나타나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 관계가 검증되지 않았다. 개인 특성 중 실패부담감은 $B= -.161$, $p < .001$ 로 나타나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 관계가 검증되었다. 사업 역량 중 기술개발 역량은 $B= .131$, $p < .05$, 마케팅 역량은 $B= .139$, $p < .05$, 네트워크 역량은 $B= .122$, $p < .05$, 자금조달 역량은 $B= .172$, $p < .001$ 로 나타나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 관계가 검증되었다. 창업 동기 중 경제적 동기는 $B= .119$, $p < .01$, 자아실현 동기는 $B= .218$, $p < .001$ 로 나타나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 관계가 검증되었다. 유의한 영향 관계를 보인 변인들의 영향력 크기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향력의 크기는 표준화 계수 β 값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값이 클수록 영향력이 큰 것을 의미한다. 실패부담감($\beta = -.208$) > 자아실현동기($\beta = .195$) > 자금조달역량($\beta = .169$) > 창의성($\beta = .154$) > 마케팅 역량($\beta = .131$) > 기술개발역량($\beta = .130$) > 경제적 동기($\beta = .128$) > 네트워크 역량($\beta = .118$) 순이었다. 한편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를 통제된 상태에서 창업만족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B= .513$, $p < .001$ 로 나타나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 관계가 검증되어 가설 4. 창업만족도는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채택되었다.

4.4 조절효과 가설 검증 결과

본 연구는 개인특성 중 창의성, 경험, 실패부담감, 사업역량 중 기술개발 역량, 마케팅 역량, 네트워크 역량, 자금 조달 역량, 창업 동기 중 경제적 동기, 자아실현 동기가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벤처창업기업과 일반창업기업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최종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기업유형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 결과

변수	모형 3				모형 4					
	B	β	t	p	B	β	t	p	VIF	
(상수)	3.903		14.891	.000	3.956		15.658	.000		
성별	.108	.038	1.006	.315	.088	.031	.836	.404	1.175	
연령	-.033	-.035	-806	.421	-.047	-.050	-1.205	.229	1.521	
결혼여부	-.111	-.056	-1.411	.159	-.106	-.053	-1.387	.167	1.297	
학력	-.010	-.014	-379	.705	-.014	-.019	-.522	.602	1.198	
창업회수	-.059	-.067	-1.568	.118	-.042	-.047	-1.123	.262	1.543	
사업형태	.085	.094	2.273	.024	.089	.098	2.460	.014	1.409	
현재회사업력	.060	.114	2.227	.027	.051	.096	1.950	.052	2.146	
총사업경력	.008	.012	.205	.838	.005	.007	.129	.897	2.941	
종업원수	-.021	-.034	-.781	.435	-.022	-.035	-.822	.412	1.594	
개인특성	창의성	.143	.181	3.785	.000	.034	.043	.645	.520	3.857
	경험	.055	.069	1.543	.124	.084	.106	1.521	.129	4.254
	실패부담	-.151	-.191	-4.879	.000	-.152	-.192	-3.112	.002	3.354
사업역량	기술	.118	.148	2.687	.008	.174	.219	2.655	.008	5.992
	마케팅	.102	.128	2.312	.021	.159	.201	2.485	.014	5.732
	네트워크	.095	.120	2.214	.028	.102	.129	1.488	.138	6.560
	자금	.137	.173	3.989	.000	.134	.169	2.419	.016	4.305

변수		모형 3				모형 4				
		B	β	t	p	B	β	t	p	VIF
창업 동기	경제동기	.091	.115	2.654	.008	.121	.152	2.160	.032	4.372
	자아실현	.146	.185	3.791	.000	.158	.201	2.367	.019	6.355
창업기업유형		-.178	-.110	-2.716	.007	-.170	-.106	-2.706	.007	1.342
창의성 * 기업유형						.322	.293	4.354	.000	3.995
경험 * 기업유형						.034	.034	.536	.593	3.463
실패부담감 * 기업유형						-.202	-.181	-2.816	.005	3.626
기술역량 * 기업유형						.301	.283	3.453	.001	5.891
마케팅역량 * 기업유형						-.028	-.029	-.343	.732	6.418
네트워크역량 * 기업유형						-.035	-.033	-.406	.685	5.905
자금조달역량 * 기업유형						-.009	-.009	-.124	.901	4.162
경제적동기 * 기업유형						-.087	-.086	-1.234	.218	4.232
자아실현동기 * 기업유형						.131	.126	2.519	.003	6.038
F 변화량		7.378**				3.981***				
R ²		.633				.674				
수정된 R ²		.609				.642				
R ² 변화량		.009				.041				

창의성, 실패부담감, 기술개발역량, 자아실현동기가 창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서 벤처창업기업과 일반 창업기업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영향 관계를 보인 변인들의 영향력 크기(표준화 계수 β 값)를 살펴보면 창의성($\beta = .293$) > 기술개발역량($\beta = .283$) > 실패부담감($\beta = -.181$), 자아실현동기($\beta = .126$)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창의성과 기술개발역량 및 자아실현동기가 창업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침에 있어서 벤처창업기업이 일반창업기업보다 영향력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패부담감은 창업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침에 있어서 벤처창업기업이 일반창업기업보다 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4.5 가설 검증 결과

본 연구가설의 검증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가설 1-1, 1-3, 2-1, 2-2, 2-3, 2-4, 3-1, 3-2, 4, 5-1, 5-3, 5-4, 5-9는 채택되었다. 반면 가설 1-2, 5-2, 5-5, 5-6, 5-7, 5-8은 기각되었다.

<표 6> 가설 검증 결과

연구가설	연구 가설 내용	검증결과
H1-1	개인특성 중 창의성은 창업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1-2	개인특성 중 경험은 창업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1-3	개인특성 중 실패부담감은 창업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2-1	사업역량 중 기술개발역량은 창업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2-2	사업역량 중 마케팅역량은 창업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2-3	사업역량 중 네트워크역량은 창업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2-4	사업역량 중 자금조달역량은 창업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3-1	창업동기 중 경제적 동기는 창업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3-2	창업동기 중 자아실현동기는 창업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4	창업만족도는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5-1	벤처창업기업과 일반창업기업은 개인특성 중 창의성이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연구가설	연구 가설 내용	검증결과
H5-2	벤처창업기업과 일반창업기업은 개인특성 중 경험이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H5-3	벤처창업기업과 일반창업기업은 개인특성 중 실패부담감이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H5-4	벤처창업기업과 일반창업기업은 사업역량 중 기술개발역량이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H5-5	벤처창업기업과 일반창업기업은 사업역량 중 마케팅역량이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H5-6	벤처창업기업과 일반창업기업은 사업역량 중 네트워크역량이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H5-7	벤처창업기업과 일반창업기업은 사업역량 중 자금조달역량이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H5-8	벤처창업기업과 일반창업기업은 창업동기 중 경제적 동기가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H5-9	벤처창업기업과 일반창업기업은 창업동기 중 자아실현동기가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4.6 논의

본 연구는 창업자의 개인특성, 창업역량 및 창업동기가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창업만족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창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의 관계에서 벤처창업기업과 일반창업기업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첫째, 기업가의 개인특성 중 창의성은 창업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경험은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실패부담감은 창업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인특성 중 창의성은 창업만족도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창의성과 창업만족도와의 정(+)의 영향관계를 규명한 선행연구(Yu et al., 2021)의 결과를 지지하는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고, 창의성과 기업성과와의 정(+)의 영향관계를 규명한 선행연구(서성열, 2019)의 결과와도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창업자의 창의성이 높을수록 창업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특성 중 경험은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이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험이 창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이상화, 하규수, 2015; 한향원, 2021)와 유사하지만, 경험과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확인한 연구결과(장수덕, 2020)나 경험과 성과와의 관계에서 정(+)의 영향을 확인한 연구결과(Staniewski, 2016)도 있다. 또한, 경험과 성과와의 관계에서 부(-)의 영향을 확인한 연구결과(조문연, 2015)도 있으며, 경험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정두식, 2016)도 있다. 이는 창업자의 동업계 또는 유사업계 종사경험이 많다고 해서 창업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아니라는 즉, 영향관계가 없다는 의미인데, 경험과 관련한 연구들은 연구대상이나 업종, 변수 등 여러 상황에 따라 정(+)의 영향, 부(-)의 영향, 유의하지 않은 영향 등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있어 일치된 견해가 없는 만큼 향후 추가적인 실증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개인특성 중 실패부담감은 창업만족도에 부정적인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실패부담감과 창업만족도와의 부(-)의 영향관계를 규명한 선행연구(Cubbon et al., 2021)의 결과를 지지하는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실패부담감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창업의지와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들로 실패부담감이 창업의지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양경애, 2021)와 유사한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사업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가지는 창업자일수록 창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업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낮출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지원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기업가의 사업역량 중 기술개발역량, 마케팅역량, 네트워크역량, 자금조달역량은 창업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업역량 중 기술개발역량은 창업만족도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술개발역량과 창업만족도와의 정(+)의 영향관계를 규명한 선행연구(송민용, 2022)의 결과를 지지하는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술개발역량과 기업성과와의 정(+)의 영향관계를 규명한 선행연구들(이혜영, 2018; 김진한, 2020)의 결과와도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기술개발역량이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강한혁 외, 2019)도 있다. 사업역량 중 마케팅역량은 창업만족도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마케팅역량과 창업만족도와의 정(+)의 영향관계를 규명한 선행연구들(Kurniawan et al., 2021; 송민용, 2022)의 결과를 지지하는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마케팅역량과 기업성과와의 정(+)의 영향관계를 규명한 선행연구(김진한, 2020)의 결과와도 유사한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업역량 중 네트워크역량은 창업만족도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네트워크역량과 창업만족도와의 정(+)의 영향관계를 규명한 Kurniawan et al.(2021)의 결과를 지지하는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고, 네트워크역량과 성과와의 정(+)의 영향관계를 규명한 선행연구(윤상만, 2019)와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업역량 중 자금조달역량은 창업만족도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금조달역량과 창업만족도와의 정(+)의 영향관계를 규명한 Chakraborty et al.(2019)의 결과를 지지하는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고, 자금조달역량과 성과와의 정(+)의 영향관계를 규명한 선행연구(이혜영, 2018)와 유사한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자금준비가 창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한향원, 2021)도 있다. 이는 창업자의 기술개발역량, 마케팅역량, 네트워크역량, 자금조달역량이 높을수록 창업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창업자 개인의 노력 뿐만 아니라 창업교육이나 자금지원 등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을 통한 역량 개발 및 강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기업가의 창업동기 중 경제적 동기와 자아실현동기는 창업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창업동기 중 경제적 동기는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동기와 창업만족도와의 정(+)의 영향관계를 규명한 선행연구들(장수덕, 2020; Milot-Lapointe et al., 2021)의 결과를 지지하는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동기와 창업의도와의 정(+)의 영향관계를 규명한 선행연구들(박성근, 2021; 양경애, 2021)과 유사한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경제적 동기가 창업만족도에 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한향원, 2021)도 있다. 창업동기 중 자아실현동기는 창업만족도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실현동기와 창업만족도와의 정(+)의 영향관계를 규명한 선행연구들(Milot-Lapointe et al., 2021; 한향원, 2021)의 결과를 지지하는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아실현동기가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강한혁 외, 2019)나 자아실현동기가 창업의지나 기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선량, 2019; 양경애, 2021)와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창업자의 경제적 동기, 자아실현동기가 높을수록 창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업가정신 교육을 통한 창업동기 부여나 사회적 자본이라 할 수 있는 기업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창업만족도는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든가 가설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만족도와 성과와의 정(+)의 영향관계를 규명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송민용, 2022)의 결과를 지지하는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창업가가 창업에 대해 만족할 수록 기업성과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창업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창업자의 개인특성이나 역량 및 창업동기 요인들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 관계를 보인 변인들의 영향력 크기는 표준화 계수의 β 값을 통해 이 값이 클수록 영향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는 실패부담감, 자아실현동기, 자금조달역량, 창의성, 마케팅 역량, 기술개발역량, 경제적 동기, 네트워크 역량 순이었다. 이를 통해 창업자들이 창업시 실패부담감을 가장 크게 느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창업동기에서는 경제적 동기보다는 자아실현동기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창업역량 중에서는 다른 역량보다 자금조달역량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창의성도 다른 역량에 비해 우선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창업자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창업지원을 위해서는 이러한 특징들을 감안한 구체적인 창업지원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여섯째, 벤처창업기업과 일반창업기업은 개인특성 중 창의성과 실패부담감이, 사업역량 중 기술개발역량이, 창업동기 중 자아실현동기가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그러나, 개인특성 중 경험이, 사업역량 중 마케팅역량, 네트워크역량, 자금조달역량, 창업동기 중 경제적 동기가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이는 개인특성 중 창의성, 사업역량 중 기술개발역량, 창업동기 중 자아실현동기가 창업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침에 있어서 벤처창업기업이 일반창업기업보다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고, 개인특성 중 실패부담감이 창업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침에 있어서는 벤처창업기업이 일반창업기업보다 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만족도와 영향관계에 있어 벤처창업기업이 일반창업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특성 중 창의성의 영향력이 더 강하고, 실패부담감의 영향력이 덜하며, 사업역량 중 기술개발역량의 영향력이 더 강하고, 창업동기 중 자아실현동기의 영향력이 더 강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개인특성 중 경험이나 사업역량 중 마케팅역량, 네트워크역량, 자금조달역량 그리고 창업동기 중 경제적 동기는 창업만족도와 영향관계에 있어 벤처창업기업이나 일반창업기업이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창의성, 실패부담감, 기술개발역량, 자아실현동기에 있어 일반창업기업과의 차이가 벤처창업기업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창업교육이나 벤처기업 확인 또는 신용평가 등에서 이를 반영하는 벤처창업 활성화방안 마련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V. 결 론

5.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가의 어떤 개인특성과 사업역량 및 창업동기 요인들이 창업만족도,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창업만족도와 영향관계에서 벤처창업기업과 일반창업기업의 조절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강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자의 개인특성 중 창의성은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창업자의 창의성이 높을수록 창업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창업자의 개인특성 중 실패부담감은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업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가지는 창업자일수록 창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창업자의 개인특성 중 경험은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창업자의 동업계 또는 유사업계 종사경험이 많다고 해서 창업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넷째, 사업역량의 기술개발역량, 마케팅역량, 네트워크역량, 자금조달역량은 모두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창업자의 기술개발역량, 마케팅역량, 네트워크역량, 자금조달역량이 높을수록 창업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창업동기의 경제적 동기, 자아실현동기는 모두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창업자의 경제적 동기, 자아실현동기가 높을수록 창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섯째, 창업만족도는 기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창업자가 창업에 대해 만족할수록 기업성과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곱째, 개인특성 중 창의성, 사업역량 중 기술개발역량, 창업동기 중 자아실현동기가 창업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침에 있어서 벤처창업기업이 일반창업기업보다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개인특성 중 실패부담감이 창업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침에 있어서는 벤처창업기업이 일반창업기업보다 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분석되어 기업유형에 따른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만족도와와의 영향관계에 있어 벤처창업기업이 일반창업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특성 중 창의성의 영향력이 더 강하고, 사업역량 중 기술개발역량의 영향력이 더 강하며, 창업동기 중 자아실현동기의 영향력이 더 강하고, 개인특성 중 실패부담감의 영향력은 덜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5.2 시사점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학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신용보증기금에서 창업보증을 지원받은 벤처기업 및 일반기업 대표자를 특정하여 연구하였다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연구대상의 경우 대학생과 직장인, 예비창업, 시니어창업, 여성창업, 외식사업 창업, 벤처창업과 같이 연령별·집단별·업종별로 구분하거나 일반적인 창업자의 특성이나 역량과 성과 등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실제 창업보증을 지원받은 벤처기업과 일반기업 대표자를 연구대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대학생이나 직장인 등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의지 연구를 통해 창업 가능성을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창업 후 운영을 하고 있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창업기업 대표자의 창업만족도와 성과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기초로 연구를 하였다는 점이 기존 연구와는 차별성이 뚜렷한 실증연구로서의 학술적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의 개인특성, 창업역량 및 창업동기와 창업만족도 간의 영향관계를 확인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창업자의 개인특성의 경우 성과와의 영향관계나 창업의지와의 영향관계를 다루는 연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창업역량의 경우 성과와의 영향관계를 다루는 연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창업동기의 경우 창업의지와의 영향관계를 다루는 연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창업만족도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변인들과의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시사점이 있다고 하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의 어떤 특성과 역량 및 동기가 창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영향관계에서 벤처창업기업과 일반창업기업이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확인하였다. 창업만족도와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수많은 선행연구들이 있지만 이러한 영향관계에서 벤처창업기업과 일반창업기업의 차이를 밝힌 연구는 거의 없는 만큼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창업가의 개인특성, 창업역량 및 창업동기가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벤처창업기업과 일반창업기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또다른 학술적 시사점이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결과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관계를 보인 주요 변인들의 영향력 크기가 실패부담감, 자아실현동기, 자금조달역량, 창의성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창업자들이 창업시 실패부담감을 가장 크게 느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경제적 동기보다는 자아실현동기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창의성도 다른 역량에 비해 우선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실패부담감이나 자아실현동기, 창의성은 다른 역량이나 특성들에 비해 단시간에 형성하거나 길러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초·중등학교에서 정규교과로 실시하고 있는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등을 통해 창업시 실패부담감을 줄이고 자아실현동기나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체계적인 조기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본 연구 결과 개인특성 중 창의성, 사업역량 중 기술개발역량, 창업동기 중 자아실현동기가 창업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침에 있어서 벤처창업기업이 일반창업기업보다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개인특성 중 실패부담감이 창업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침에 있어서는 벤처창업기업이 일반창업기업보다 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창의성, 실패부담감, 기술개발역량, 자아실현동기에 있어 일반창업기업과의 차이가 벤처창업기업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창업교육이나 벤처기업 확인 또는 벤처기업 신용평가 등에서 이를 반영하는 벤처창업 활성화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창업만족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변인은 사업실패부담감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창업자들의 사업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낮출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기업가정신교육 등 정책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창업자금지원의 경우 대출 등 간접금융 위주의 자금지원에

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업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키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에서 시행중인 연대보증인 입보면제제도를 창업자나 예비창업자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창업교육 등을 통해 전파함으로써 실패부담감을 줄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넷째, 창업자의 경제적 동기, 자아실현동기가 높을수록 창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기업가정신 교육을 통한 창업동기 부여나 사회적 자본이라 할 수 있는 기업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마련 등 체계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5.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그동안 창업자의 개인특성, 창업역량, 창업동기 관련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창업의지나 성과 등과의 영향관계를 연구하였는데 반해 창업만족도와와의 영향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벤처창업기업과 일반창업기업이 어떤 차이가 나는지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는데 차별화된 학술적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신용보증기금의 창업보증을 지원받은 벤처창업기업가 159명, 일반창업기업가 161명 총 320명으로 하여 표본자료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벤처창업기업과 일반창업기업으로 확대하여 일반화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표본의 범주를 확대하거나 지원기관별 차이를 분석하는 추가 연구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벤처기업과 일반기업으로만 구분하여 세부적인 업종별 영향관계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향후 세부 업종별 또는 대표 업종별 분류나 매출액 또는 상시 종업원 규모에 따른 구분을 통해서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 요인들과 벤처기업과 일반기업의 차이를 추가 연구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외생변수가 워낙 강하게 작용하는 시점임을 감안할 때 창업만족도나 성과 그리고 실패부담감 등 변인들에 대한 대표자들의 지각 정도나 평가가 정상적인 경제상황에서와는 다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FERENCE

- 강한혁, 박우진, 배병운(2019). 창업자의 창업동기, 창업가정신 그리고 창업가 역량특성이 창업기업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창업기업 경영성과를 매개로 하여. *벤처창업연구*, 14(3), 59-71.
- 고세훈(2011). *중소벤처기업의 경쟁전략과 경영성과 간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기업은행(2021). *2021년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
- 김광인(2021). *MRO(Maintenance, Repair, Operations)·Business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관계가 가맹점 만족도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김남호(2015). *마케팅 전략유형과 역량이 마케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제약기업의 전문의약품(Rx) 마케팅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세명대학교 대학원.
- 김영부(2019). 창업관련 개인적 특성변수와 심리적 요인들이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지*, 20(2), 180-189.
- 김진한(2020). *창업가역량과 창업보육프로그램 지원이 기술창업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창업기업 핵심역량의 매개효과와 창업기업 성장단계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금오공과대학교 대학원.
- 김진홍(2021). *부모의 멘토링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실패부담감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김형진(2019). *창업지원사업의 가치인식이 창업역량 및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지원사업 의존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대학원.

- 김희선(2019). *벤처출신기업의 성과분석*. 서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 마크로밀엠브레인(2020). *2020 창업관련 인식조사*. <https://www.trendmonitor.co.kr>.
- 박성근(2021). *농산업 ICT 기술적특성 인식과 창업동기가 스마트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 지원정책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 배병윤, 이주현(2018). *대학생의 조절초점성향이 기업가지향성, 창업동기,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13(2), 29-52.
- 서성열(2019). *청년 창업가 역량이 창업의지와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 창업의지의 매개효과와 창업교육의 조절효과*.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 선량(2019). *예비청년창업가의 창업동기와 실패부담감이 창업기회역량에 미치는 영향: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지향성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 송민용(2022). *창업보육센터 지원프로그램의 질과 기업역량이 입주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대학원.
- 양경애(2021). *중장년층의 창업의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업기회탐색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 유봉호(2015). *성취욕구와 창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창업동기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0(3), 51-60.
- 윤상만(2019). *소공인의 CEO, 기업특성 및 정부지원정책이 의사결정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네트워크 활동 및 흡수역량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대학원.
- 윤종필(2021). *기업의 R&D 역량, 외부네트워크 역량, 기술사업화 역량과 경영성과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
- 이상화, 하규수(2015). *창업가정신, 창업역량이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플로우(Flow)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0(5), 137-150.
- 이혜영(2018). *기술창업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성장단계별 창업역량 모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이희혁(2020). *소규모 외식창업자의 특성, 성공요인 만족도 및 사업지속의도 간의 구조적관계: 경영성과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임아름(2015). *청년창업가의 역량이 창업행동과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 장수덕(2020). *무엇이 청년창업자들을 만족하게 만드는가? 창업의 외재적·내재적 만족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15(2), 96-118.
- 장영미(2018). *시니어의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 정두식(2016). *창업가 특성 및 경력지향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산업경제연구*, 29(4), 1565-1586.
- 정성한, 김해룡(2001). *소상공인 창업성공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4(2), 3-29.
- 정종식(2021). *재직자의 창업역량, 기업가정신과 경력회피가 Push 및 Pull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 조문연(2015). *기술창업기업 대표자의 창업준비정도가 기술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 하규수(2009). *기업가의 사업실패비용과 사업 의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한만선(2020). *중장년 창업가의 창업역량과 사회적 자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와 창업지원서비스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 한창인(2020). 벤처창업기업의 지속가능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한향원(2021). 초기창업자의 창업요인이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 Barney, J. B.(1991). Firm resources and 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 *Journal of Management*, 17(1), 99-120.
- Chakraborty, T., Ganguly, M., & Natarajan, A.(2019). Predicting entrepreneurial satisfaction: the role of non-financial incentive factors and quality of life among women digital entrepreneurs. *Journal of Global Business Advancement*, 12(3), 328-355.
- Cubbon, L., Darga, K., Wisnesky, U. D., Dennett, L., & Guptill, C.(2021). Depression among entrepreneurs: a scoping review. *Small Business Economy*, 57, 781-805.
- Delmar, F., & Shane, S.(2006). Does experience matter? The effect of founding team experience on the survival and sales of newly founded ventures. *Strategic Organization*, 4(3), 215-247.
- Gilad, B., & Levine, P.(1986). A behavioral model of entrepreneurial supply.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24, 45-43.
- Govindarajan, V.(1984). Appropriateness of accounting data in performance evaluation: An empirical examination of environmental uncertainty as an intervening variable. *Accounting Organization and Society*, 19(2), 125-135.
- Herzberg, F.(1959). *The Motivation to Work*. NY: Wiley.
- Ittner, C. D., & Larcker, D. F.(1998). Innovations in performance measurement: Trends and research implications. *Journal of Management Accounting Research*, 4, 205-238.
- Kurniawan, R., Budiastuti, D., Hamsal, M., & Kosasih, W.(2021). Networking capability and firm performance: the mediating role of market orientation and business process agility. *Journal of Business & Industrial Marketing*, 36(9), 1646-1664.
- Maslow, A.(1943). A preface to motivation theory. *Psychosomatic Medicine*, 5, 85-92.
- Milot-Lapointe, F., Boua, S. J. P., & St-Jean, E.(2021). Motivation and the careers of agricultural entrepreneurs in Ivory Coast. *Journal of Enterprising Communities: People and Places in the Global Economy*, 15(2), 723-738.
- Morris, M. H., Webb, J. W., Fu, J., & Singhal, S.(2013). A competency-based perspective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Conceptual and empirical insight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51(3), 352-369.
- Obschonka, M., Lee, N., Rodríguez-Pose, A., Eichstaedt, J. C., & Ebert, T.(2020). Big data methods, social media, and the psychology of entrepreneurial regions: capturing cross-county personality traits and their impact on entrepreneurship in the USA. *Small Business Economy*, 55, 567-588.
- Runco, M. A.(1991). *Divergent Thinking*. N.J : Norwood.
- Ryan, R. M., & Deci, E. L.(2000).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s: Classic definitions and new direction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5(1), 54-67.
- Sarwoko, E., & Nurfarida, I. N.(2021). Entrepreneurial marketing: Between entrepreneurial personality traits and business performance. *Entrepreneurial Business and Economics Review*, 9(2), 105-118.

- Staniewski, M. W.(2016). The contribution of business experience and knowledge to successful entrepreneurship.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9(11), 5147-5152.
- Su, X., Liu, S., Zhang, S., & Lingling, L.(2020). To be happy: A case study of entrepreneurial motivation and entrepreneurial process from the perspective of positive psychology. *Sustainability*, 12(2), DOI:10.3390/su12020584.
- Yu, T., Khalid, N., & Ahmed, U.(2021). Factors influenc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among foreigners in Kazakhstan. *Sustainability*, 13(13), DOI:10.3390/su13137066.

Effects of Personal Characteristics, Business Capabilities and Start-up Motivation on Start-up Satisfact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Venture Startups and General Startups

Kim, Hyong-sok¹⁾
Chung, Byoung-gyu²⁾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moderating effect of venture start-up and general start-up based on what kinds of entrepreneurs' personal characteristics, business capabilities, and start-up motivation factors affecting start-up satisfaction. This study conducted an online survey of companies who received credit guarantee for start-ups from KCGF(Korea Credit Guarantee Fund), and finally collected 320 survey data. And it conducted statistical analyses such as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etc. using SPSS 24.0 statistics program.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t is tested that creativity, one of entrepreneurs' characteristics, had a positive effect(+) on start-up satisfaction. Second, it is found that the failure burden, one of entrepreneurs' characteristics, had a negative effect(-) on start-up satisfaction. Third, experiences, one of entrepreneurs' characteristics, had not a significant effect on start-up satisfaction. Fourth, it was analyzed that business capabilities such as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marketing, networking, and financing had a positive effect(+) on start-up satisfaction. Fifth, it is tested that the economic and self-realization motiv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start-up satisfaction. Sixth, start-up satisfac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business performances. Last, it was analyzed that venture start-ups had a more positive effect than general start-up in the creativity,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the self-realization of start-up motivation affecting start-up satisfaction. And, it was found that venture start-ups have a less negative effect than general start-up in the failure burden affecting start-up satisfaction.

Keyword: personal characteristics, business capabilities, start-up motivation, start-up satisfaction, business performances, venture start-ups

1)First Author, Executive Director, Korea Credit Guarantee Fund, glorykhs@naver.com

2)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of Sungkyul University, gljoseph@sungkyul.ac.kr

저 자 소 개

- 김형석(Kim, Hyong-sok)
- 신용보증기금 본부장, 경영학 박사
<관심분야> : 창업, 벤처, 경영혁신, 중소기업 금융지원, 경영컨설팅 등

교 신 저 자 소 개

- 정병규(Chung, Byoung-gyu)
- 성결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 경영학 박사, 경영지도사, 창업보육 전문매니저, 경영 빅데이터 분석사, 빅데이터 전문가 1급, SNS 마케팅전문가 1급, 진로 적성 상담사 1급, 진로 직업 상담사 1급, 창업상권 분석지도사 1급 등
- NIPA, IITP,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 4차산업관련 평가위원
저서 : <메타버스를 타다, 2021>, <한방에 통과하는 논문 쓰기, 2021>, <2022 이기적 NCS 직업기초 능력평가 입문서, 2022> 등
<관심분야> : ICT전략 및 마케팅, AR/VR 및 Metaverse, Bigdata, 4차산업 비즈니스 모델 등